

# 산유국의 석유수출 계약형태 변화

**최근** 산유국들의 석유수출 계약형태가 바뀌고 있다.

지난 수년간 주요 석유생산, 수출국의 수출계약은 고객의 數의인 면과 다수화에서 많은 변화를 보였다. 19개 주요 석유생산 수출국의 주요 계약(341건)을 대상으로 조사(표 참조)한 바에 따르면, 지난 '89년 사우디의 고객수는 22개였는데 '92년에는 47개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중 멕시코는 23개에서 29개로, 베네수엘라는 11개에서 30개로, 이란은 11개에서 30개로, 그리고 나이지리아는 11개에서 23개로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다. 한편 '89년의 평균 계약규모는 5.5만b/d였으며 계약의 60%이상이 5만b/d이하였던 반면, '92년에는 평균계약규모가 3.5만b/d로 줄어 들었고, 계약의 반이상이 3만b/d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규모면에서 현저히 줄어든 현상을 보이고 있다. 걸프戰後 쿠웨이트와 이라크의 물량이 석유시장에서 사라짐으로써 戰前에 비해 거래물량 규모가 다소 커지기는 하였으나 거래규모의 축소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석유수출국의 販賣技法 발달로 과거 대규모 거래업자들이나 메이저를 통한 再販賣가 줄어들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물량이 증대하였다. 이 현상은 사우디, 이란, 리비아 그리고 나이지리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가격결정은 주로 현물시장과 連繫, 月 혹은 분기별로 산정하고 있는데 계약의 70% 이상이 북해산 브렌트油나 두바이油 같은 주요 油種과 연계하여 가

격을 책정하고 있다. 이 중 65%가 月을 기준으로 한 가격산정 방식이며, 22%가 분기를, 그리고 나머지 23%(주로 극동)가 소급가격제를 택하고 있다.

한편 지난 해부터는 *Cargo-by-cargo*로 가격을 결정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 계약을 "*Frame contracts*"라고 하는데, 특히 이란의 석유수출 계약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최근 사우디, 베네수엘라, 멕시코에서는 期間契約者들에게 잉여물량을 이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 계약의 특징은 구매자가 공급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수월에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利點이 부여되는데, 이는 구매자의 입장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판매자의 입장에서도 既 확보된 많은 계층의 고객중 그 달의 최고 가격 제시자에게 물량을 인도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공급이 타이트한 시장에서는 더 많은 단기 판매수익을 얻을 수 있는 利點이 있다.

*Frame contract*는 생산시설 용량이 증대하는 산유국에 특히 유리한데, 이는 잉여물량을 부담없이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형태의 계약은 걸프戰後, 러시아로부터의 석유공급 불확실성 및 석유시장의 일시적 부족과 공급과잉의 변동이 심했던 상황하에서 많이 이루어 졌다. 현재 유럽 구매자들은 저렴한 러시아産 석유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부담없이 이란의 국영 *NIOC*과 이 계약을 맺음으로써 소요 물량을 손쉽게 확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동향)

주요 석유수출국의 석유 수출계약 추이

	기간 계약 수		일반 계약 규모 (千b/d)	평균 계약 규모 (千b/d)	계약물량/생산 (%)
	1989	1992			
사우디아라비아	22	47	50	115	66
이 란	23	46	30	50	67
리 비 아	4	14	-	57	52
나이지리아	11	24	30	31	40
아 부 다 비	9	21	20	22	25
쿠 웨 이 트	10	10	20	44	55
오 만	6	16	20	22	50
카 타 르	8	14	10	24	85
이 집 트	*	27	2.8	6.6	20
시 리 아	*	5	20	24	24
예 멘	5	3	10	14	23
맥 시 코	23	29	30	45	48
베네수엘라	11	30	-	36	48
에 콰 도 르	9	7	-	22	50
콜롬비아	4	6	16.5	17	23
인도네시아	8	4	50	73	21
말레이시아	*	20	8	13	37
중 국	11	7	-	40	20
베 트 남	*	11	-	9	100
합	164	341	-	35	44

주1. '92년조사 : 총19개국, 341개 계약

2. '89년조사 : 총16개국 187개 계약(쿠웨이트와 이라크 포함)

(자료) PIW

알아봅시다

# 에너지原單位

## 일정한 부가가치生産에 투입되는 에너지를指數化

일정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에너지의 양을 지수화한 것이다.

흔히 GNP(국민총생산) 1,000달러를 창출하는데 소요된 에너지의 양이 에너지원단위로 활용된다. 이 경우 산출방법은 연간 GNP 규모에 해당기간중 투입된 총에너지량을 t으로 나누면 된다. 최근 우리나라 산업의 에너지원단위가 日本등 경쟁국에 비해 크게 높은것으로 밝혀져 주목되고 있다. 상공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국내제조업의 평균에너지원단위는 0.493인데 비해 日本은 0.198로 우리보다 크게 낮다.

업종별로는 비금속광물업계의 에너지원단위가 日

本보다 4.1배나 높은것을 비롯 조립기계 음식료 화학업종등이 모두 2.5배이상 높은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제조업의 에너지원단위가 높은것은 산업구조가 에너지다소비형으로 되어있는 탓도있지만 국산 제품의 부가가치가 낮은데다 산업체의 에너지낭비가 심하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산업체의 에너지원단위를 앞으로 크게 낮춰가기로 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도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